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발표자 ○○○입니다. 최근 케이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까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호랑이와 까치는 조선 시대 민화 호작도에서 이어져 온 전통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입니다. 호작도는 호랑이와 까치를 한 화면에 그린 그림인데요, 오늘은 호작도 속에서 호랑이와 까치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그림, ㉠ 여기 호작도를 볼까요? 호작도는 보통 나무 아래에 호랑이를, 위에는 까치를 배치해 당대 사람들의 인식과 바람을 담아냈습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호랑이로 인한 화를 뜻하는 호환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위협적인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힘이 액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결과 호랑이를 나쁜 기운을 막아 주는 수호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자료의 호랑이를 가리키며) ㉡ 그런데 이 그림 속 호랑이, 수호자처럼 보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어딘지 의연하고 듩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며) 눈은 이렇게 과장되게 크고, 발도 몽툭하지요. ㉢ 이는 호랑이를 익살스럽게 그림으로써 친근한 존재로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료의 까치를 가리키며)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까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까치에 대한 속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그렇죠.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길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작도에 길조인 까치를 그려 넣은 것은 복을 기원하는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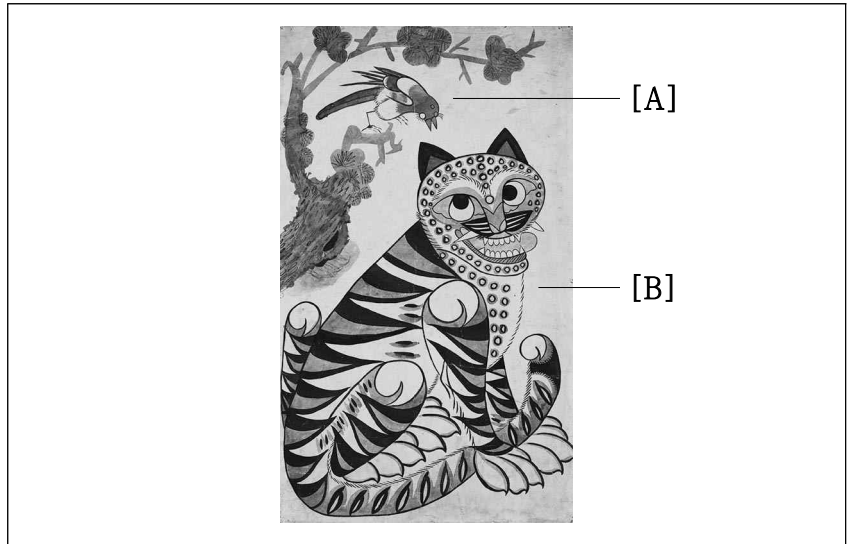
㉣ 한편 호작도를 민화 특유의 풍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민화는 민중에게 익숙한 소재를 왜곡하거나 과장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곤 했는데요. 이를 고려해 호랑이와 까치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중왕이라 불릴 만큼 위엄 있는 호랑이는 흔히 지배층을 상징합니다. (자료의 호랑이를 가리키며) 민중은 절대적 권위자를 이처럼 우스꽝스럽게 그려 ㉤ 그가 지닌 위엄을 무너뜨리고, 이를 통해 통쾌함을 느꼈던 것이죠. (자료의 까치를 가리키며) 이렇게 나무 위에서 호랑이를 내려다보며 지저귀는 까치는 지배층을 조롱하는 민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호랑이는 수호자이자 풍자의 대상인 지배층으로, 까치는 길조이자 풍자의 주체인 민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는 오늘날까지 재창조되어 일상 속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매체에서 캐릭터로만 보던 호랑이와 까치를 직접 그림으로 마주해 보고 싶다면 박물관에 한번 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1.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 소재의 뜻을 풀이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 ② 청중이 던진 질문에 답하여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 ③ 관용적 표현을 통해 설명 대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 ④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발표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인다.
- ⑤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해 보기를 권하며 발표를 마무리한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발표자가 [A], [B]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호랑이보다 높은 곳에 배치하여 복을 기원하는 민중의 소망이 절실했음을 드러냈다.
- ② [A]: 호랑이를 향해 지저귀는 모습은 지배층의 권위에 따르고자 하는 민중의 모습을 나타냈다.
- ③ [B]: 눈을 과장되게 크게 그리고 몽툭한 발을 부각함으로써 절대적 권위자의 위엄을 드러냈다.
- ④ [B]: 외양을 익살스럽게 그려 친근한 존재로 곁에 두고 싶어했던 민중의 심리를 반영했다.
- ⑤ [B]: 민화 특유의 특징을 반영하여 산중왕으로서 의연하고 듩직한 모습을 형상화했다.

3. <보기>는 발표 전에 학생이 참고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담화가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응집성을 갖추어야 한다. 응집성이란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나 문장들이 내용상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응집성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 앞의 내용을 다른 말로 대신하여 반복을 피하는 대용 표현,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표현 등이 있다.

- ① ㉠: 지시 표현으로, 발표자가 제시한 호작도를 가리키며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군.
- ② ㉡: 접속 표현으로, 앞에서 말한 호랑이에 대한 설명과 관련지어 다른 내용을 언급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군.
- ③ ㉢: 대용 표현으로, 앞에서 제시한 호랑이의 외형적 특징을 대신하여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군.
- ④ ㉣: 접속 표현으로, 앞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호작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군.
- ⑤ ㉤: 대용 표현으로, 앞에서 제시한 절대적 권위자를 대신하여 반복을 피하고 있군.

[4~6] 다음은 고전적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오늘은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양측의 첫 번째 입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찬성 1: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생명 존중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 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 동물실험은 이에 해당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사용 실험동물 459만 마리 중 최고 수준의 고통 등급인 E등급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비율은 51.5%였습니다. 이처럼 동물실험은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동물 학대로, 생명 존중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저해하므로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합니다.

반대 1: 동물실험 금지를 반대합니다. 동물실험을 금지하면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까지 제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간 생명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을 금지할 경우 신약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단이 부족해져 인간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실험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이기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양측은 두 번째 입론을 해 주십시오.

찬성 2: 동물실험보다 동물실험 대체 기술이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에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을 통해 신약의 효과 혹은 부작용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보고되어 왔는데, 이는 동물실험의 한계를 보여 줍니다. 반면 동물실험 대체 기술은 동물실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 대체 기술에 활용되는 오가노이드는 인간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세포 집합체로, 실제 장기와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 2: 동물실험 대체 기술은 아직 발전 수준이 낮아 인간의 복잡한 생체 반응을 온전히 재현할 수 없습니다. 동물실험 대체 기술을 통해서만 새로운 물질에 대해 신체 내의 여러 세포와 장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수의과대학 임○○ 교수는 OECD가 공인한 동물실험 대체 기술이 발암성, 생식 독성 등 복잡한 항목에서는 아직 동물실험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수준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동물실험 대체 기술만을 믿고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시기상조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찬성 측 토론자 순으로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찬성 측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 학대의 정의를 근거로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실험동물법을 고려할 때, 동물실험은 [A]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찬성 1: 반대 측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한 동물의 희생은 불가피함을 주장하셨는데,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된 오늘날 인간만을 우선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4.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용어의 정의를, 반대 1은 개념의 변화를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통계 자료를, 반대 1은 헌법 조문을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경제적 필요성을, 반대 1은 초래될 문제점을 언급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찬성 1은 개인적 경험을, 반대 1은 해외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찬성 1은 대안의 실효성을, 반대 1은 예상되는 반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5.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쟁점 1]

동물실험 금지는 윤리적인가?

- 찬성 1: 동물실험을 금지하여 생명 존중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①
- 반대 1: 동물실험을 금지하면 인간 생명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②

[쟁점 2]

동물실험 대체 기술은 동물실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③

- 찬성 2: 동물실험 대체 기술은 동물실험보다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④
- 반대 2: 동물실험 대체 기술은 인간의 복잡한 생체 반응을 온전히 재현할 수 없다. ⑤

6. 다음은 논제와 관련하여 반대 측이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실험동물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험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과학적 목적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 ②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 ③ 실험동물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 ④ 고통 등급을 구분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 ⑤ 실험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7. <보기>는 중세 국어의 모음 표기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중세 국어에서 모음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다. 모음을 표기할 때에는 기본자인 ‘·, ㅡ, ㅣ’, 초출자인 ‘ㅛ, ㅜ, ㅠ, ㅡ’, 재출자인 ‘ㅝ, ㅞ, ㅟ, ㅠ’를 사용했습니다. 기본자와 초출자는 단모음을, 재출자는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표기였지요.

학생 : 그러면 선생님, 모음 ‘ㅝ’는 어떻게 표기한 것인가요?

선생님 : 좋은 질문이에요. ‘ㅝ’는 초출자 ‘ㅛ’와 기본자 ‘ㅣ’를 합한 표기입니다. 그리고 ‘ㅞ’는 초출자 ‘ㅜ’와 ‘ㅛ’를 합한 표기입니다. ‘ㅝ’처럼 초출자를 ‘ㅣ’와 합하거나, ‘ㅞ’처럼 초출자끼리 합한 것들은 모두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표기였어요. 이렇게 글자를 합해 쓰면, 중세 국어의 다양한 모음들을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 선생님, 그러면 [A] 을 나타내는 표기였군요.

선생님 : 네, 맞아요.

- ① ‘·’는 기본자로, 중세 국어에서 단모음
- ② ‘ㅛ’는 초출자로, 중세 국어에서 단모음
- ③ ‘ㅝ’는 재출자로,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
- ④ ‘ㅛ’는 초출자끼리 합한 표기로,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
- ⑤ ‘ㅝ’는 초출자를 ‘ㅣ’와 합한 표기로,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

8. <보기>의 ㉠, ㉡에 모두 해당하는 예를 <자료>의 ㉠~㉡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문장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정 표현은 의미에 따라 의지 부정, 능력 부정, ㉠ 단순 부정으로 나뉜다. 주체의 의지를 부정하는 의지 부정과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은 부정 부사 ‘안’이나 보조 용언 구성 ‘-지 않다(아니하다)’로 실현된다. 주체의 능력을 부정하는 능력 부정은 부정 부사 ‘못’이나 보조 용언 구성 ‘-지 못하다’로 실현된다.

부정 표현이 사용된 부정문은 형식에 따라 짧은 부정문과 ㉡ 긴 부정문으로 나뉜다. 짧은 부정문은 부정 부사를, 긴 부정문은 보조 용언 구성을 사용하는 부정문이다.

< 자 료 >

학생 1 : 너 숙제 다 했어?

학생 2 : 아니, 혼자서는 하기 싫어서 ㉠ 아직 시작 안 했어.

학생 1 : 난 어려워서 ㉡ 다 끝내지 못했는데. 같이 할래?

학생 2 :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잖아. ㉢ 내 생각에는 오늘 안에 다 못 해.

학생 1 : 철수와 영희도 숙제를 함께 하니까 ㉣ 오래 걸리지 않았대. 우리 둘도 힘을 합치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거야.

학생 2 : 좋아, ㉤ 포기하지 않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사, 명사, 용언이 관형어로 쓰일 수 있는데, 명사는 조사 ‘의’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하며, 용언은 어간에 ‘-는’과 같은 어미를 결합하여 쓰인다. 이때 한 단어가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고, 두 단어가 함께 하나의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기도 한다.

- ㉠. 첫 만남은 항상 설레다.
- ㉡. 동생의 성격은 참 좋다.
- ㉢. 흐르는 물에 손을 씻다.
- ㉣. 험 겨울 이불을 버리다.
- ㉤. 옆 반 친구와 인사하다.

- ① ㉠ : 관형사 ‘첫’은 체언 ‘만남’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② ㉡ : 명사 ‘동생’은 조사 ‘의’와 결합하여, 체언 ‘성격’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③ ㉢ : 용언 ‘흐르는’은 어간에 어미 ‘-는’이 결합하여, 체언 ‘물’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④ ㉣ : 관형사 ‘험’은 체언 ‘겨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겨울’은 체언 ‘이불’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⑤ ㉤ : 명사 ‘옆’은 체언 ‘반’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옆 반’은 체언 ‘친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10. <보기>의 ‘탐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탐구 과제]
표준 발음법을 활용하여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표준 발음을 탐구해 보자.

○ 밭에 있는 꽃을 꺾어 화병에 꽂았다.
○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훔쳐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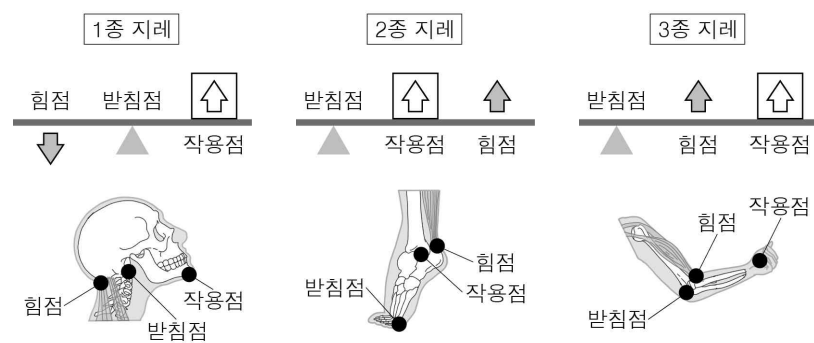
[표준 발음법]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① 밭에 : 제13항에 따라 [바테]로 발음하는군.
- ② 꽃을 : 제13항에 따라 [꼬출]로 발음하는군.
- ③ 꺾어 : 제13항에 따라 [꺼꺼]로 발음하는군.
- ④ 값을 : 제14항에 따라 [갑쓸]로 발음하는군.
- ⑤ 훔쳐 : 제14항에 따라 [호게]로 발음하는군.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골격근은 힘줄을 통해 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으로, 인체의 운동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달리기할 때 필요한 힘은 모두 골격근에서 만들어진다. 골격근은 수축 작용으로 힘을 만들어 내며 스스로 이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팔을 굽힐 때 이두근이 수축하면 쌍을 이루는 삼두근은 이완되고, 팔을 펼 때 삼두근이 수축하면 이두근은 이완된다. 그렇다면 골격근을 통해 운동이 실행되는 원리는 무엇일까?

골격근은 지레의 작용을 통해 힘을 전달한다. 지레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데에 쓰는 막대기이다. 여기서 막대기를 고정하는 곳을 받침점, 힘을 가하는 곳을 힘점, 지레를 통해 힘이 미치는 곳을 작용점이라고 한다. 인체에서는 뼈와 뼈가 맞닿아 연결되는 곳인 관절이 받침점, 뼈에 힘을 가하는 힘줄의 끝부분이 힘점, 힘이 미치는 곳이 작용점이 된다. 이러한 지레는 받침점, 힘점, 작용점의 위치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위의 그림은 지레의 종류별로 인체에서 일어나는 지레의 작용을 보여 준다. 1종 지레는 ‘힘점-받침점-작용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목 근육이 수축하면 목 관절을 받침점으로 작용점인 턱끝이 위로 올라간다. 2종 지레는 ‘받침점-작용점-힘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발가락 관절을 받침점으로 작용점인 발목이 올라간다. 3종 지레는 ‘받침점-힘점-작용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이두근이 수축하면 팔꿈치 관절을 받침점으로 작용점인 손이 위쪽으로 움직인다.

골격근의 수축 작용은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세포 내의 근육 원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근육 원섬유에는 굵기가 가는 액틴 필라멘트와 굵기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일부분씩 겹쳐 배열되어 있다. 근육 원섬유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 밝게 보이는 구간을 명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어둡게 보이는 구간을 암대라고 하며, 암대 중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을 H대라고 한다.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를 서로 이어 주는 선을 Z선이라 하는데, Z선과 Z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한다.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축한다. 먼저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있는 마이오신 머리는 에너지가 공급되면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어 구름다리 구조를 형성한다. 그다음 마이오신 머리들이 고개를 돌리듯 회전하면서 양쪽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가까워지고 구름다리 구조는 분해된다. 이러한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방식으로 골격근이 수축한다. 이때 각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으며,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는 수가 많을수록 발생하는 힘이 더 커진다.

한편 골격근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는 여러 공급원으

로부터 제공된다. 근육 세포에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이 소량 저장되어 있는데, 먼저 근육 세포에 저장된 ATP를 사용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ATP는 호흡을 통해 얻은 산소로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하여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ATP의 생산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며 체내에 젖산을 발생시키고 근육의 피로가 유발된다. 골격근의 활동이 끝난 후에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생산하여 근육 세포에 다시 저장하고 젖산을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골격근의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할 때 숨을 가쁘게 쉬거나, ㉠ 운동을 한 후에 숨을 몰아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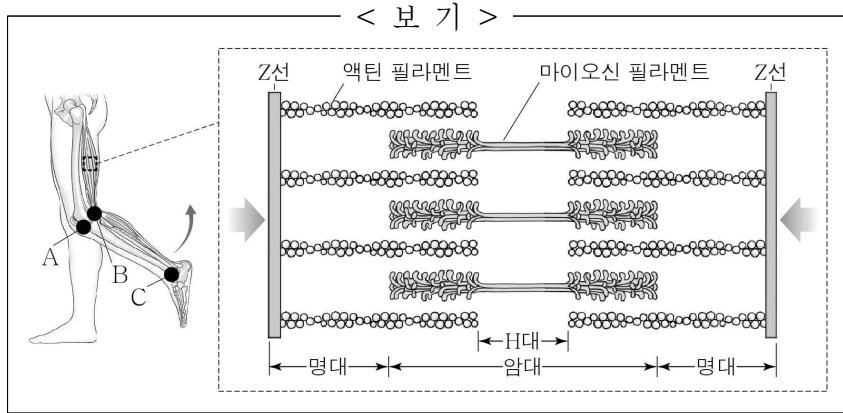
11.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힘줄은 뼈와 골격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 ② 골격근은 이완함으로써 수축하는 힘을 만들어 낸다.
- ③ 팔에 있는 이두근과 삼두근은 쌍을 이루어 작동한다.
- ④ 근육 원섬유를 통해 골격근의 수축 작용이 일어난다.
- ⑤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이 수축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1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육의 피로가 해소된 후 일어나는 현상이겠군.
- ② 분해할 젖산의 양이 줄어 나타나는 현상이겠군.
- ③ 생산된 ATP의 양이 많아 일어나는 현상이겠군.
- ④ 포도당과 지방산의 생산을 유발하는 현상이겠군.
- ⑤ 크레아틴 인산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현상이겠군.

[13~14] <보기>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과 <보기>를 참고해 13번과 14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13. <보기>에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작용하는 지레의 종류로 적절한 것은?

- ① '힘점(B)-받침점(C)-작용점(A)'의 구조로 된 1종 지레이다.
- ② '받침점(A)-작용점(B)-힘점(C)'의 구조로 된 2종 지레이다.
- ③ '받침점(B)-작용점(C)-힘점(A)'의 구조로 된 2종 지레이다.
- ④ '받침점(A)-힘점(B)-작용점(C)'의 구조로 된 3종 지레이다.
- ⑤ '받침점(B)-힘점(C)-작용점(A)'의 구조로 된 3종 지레이다.

14. <보기>의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할 때 일어나는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마이오신 머리가 만든 구름다리 구조가 형성되고 분해되는 일이 반복된다.
- ② 암대의 길이가 줄어들며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
- ③ 명대의 길이가 줄어들며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밝게 보이는 구간이 좁아진다.
- ④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H대의 길이가 줄어든다.
- ⑤ 액틴 필라멘트를 서로 이어 주는 Z선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며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진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라피티란 공공장소에 낙서처럼 그려진 글자나 그림을 말한다. 그라피티는 도시 소외 계층들이 건물 벽이나 지하철 등의 장소에 허가받지 않은 채 재빠르게 낙서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저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에 유행했던 그라피티는 주로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태그'로 시작되었다. 태그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태그를 돋보이게 하고자 기존에 있던 태그 위에 덧대어 더 크게 태그를 그리기도 하고, 태그 자체를 복잡한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지닌 그림처럼 변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글자는 읽는 대상에서 보는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글자가 지닌

조형적 요소가 강조되며 그라피티는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태그가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게 그려지다 보니 대중들은 태그가 어떤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려워했다. 그라피티를 그리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저항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예술이 개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 비평가들은 단순히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행위에 불과했던 그라피티를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이에 그라피티는 ① '비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텅 비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1980년대의 그라피티 예술가들은 작품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으로 대상의 형상을 오려 낸 부분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스텐실 기법이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정교한 형상을 갖춘 글자와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술성을 높이면서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작업할 장소를 염두에 두고 표현할 글자나 그림의 형상을 미리 준비하여 현장에서의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일부 그라피티 예술가들은 그라피티가 그려지는 장소 자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목소리를 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분쟁 지역에 평화의 메시지를, 낡은 건물의 벽면에 열악한 도시 환경에 대한 풍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렇게 장소 자체가 작품의 의미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장소 특정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그라피티는 그려진 장소에서 떼어 내는 순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지거나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저항 정신에 기반한 낙서 행위에 불과했던 그라피티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그라피티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는 공공 예술 장르로 인정받게 되었다.

15. 윗글의 '그라피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장소에 낙서처럼 그려진 글자나 그림이다.
- ②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 ③ 태그는 주로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것을 의미한다.
- ④ 글자가 읽는 대상에서 보는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 ⑤ 예술 장르로 인정받으면서 창작 주체가 도시의 소외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16. ①과 같이 평가받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가들이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작품의 기법을 다양화하였기 때문이다.
- ② 사용하는 색채를 제한하여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③ 대중들이 저항적 메시지에 거부감을 느꼈고 작가들이 소통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예술가들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였고 애초의 저항적 성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 ⑤ 글자가 복잡하고 화려하여 알아보기 어려웠고 개인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7.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언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예사: 이 사진은 공공장소인 ㉠ 어느 주차장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 작품을 찍은 것입니다. 해당 장소가 주차장임을 알리던 'PARKING'이라는 글자의 'ING' 부분을 작가가 페인트로 덧칠하여 공원이란 의미의 단어인 'PARK'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여 그네 타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글자 'A' 아래에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문자와 그림을 사용하여 현대 사회의 도시 공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 ① 'ING' 부분을 페인트로 덧칠하여 글자의 형태를 단순화함으로써 글자가 지닌 조형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 ②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여 '그네 타는 어린 소녀'의 형상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작업 속도를 높였다.
- ③ 주차장이라는 공공장소에 그려진 공공 예술로 도시에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었다.
- ④ 글자와 함께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을 활용하여 예술성을 높이면서도 대중들이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상화하였다.
- ⑤ 'PARKING'을 'PARK'로 바꾼 표현 의도를 고려할 때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보면 의미가 퇴색되는 장소 특정성을 지녔다.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화이트는 문화를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 낸 체계라고 보았다. 즉, 인간은 타고난 신체적 능력만으로는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생존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를 기술적 체계, 사회적 체계, 관념적 체계라는 **세 가지 층위**로 세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발전의 원리를 설명했다.

기술적 체계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자 기반이 된다. 사회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을, 관념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와 사회적 체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상, 신념, 규범 등을 일컫는다.

화이트는 기술적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체계와 관념적 체계가 잇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물을 끌어 쓰는 기술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게 되면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역할을 ㉡ 분담하는 사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협력을 공동체의 덕목으로 삼게 됨으로써 상부상조하는 농경 문화가 정착했다.

화이트에 따르면 모든 대상은 자연법칙에 따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인간은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명을 유지하려는 ㉢ 반(反) 엔트로피*적 성향을 띤다. 그에 따라 인간은 에너지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수단을 개발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

화이트는 문화 발전의 보편적 원리를 $E \times T = C$ 라는 공식으로 나타냈다. 이 공식에서 E는 1인당 연간 동력화한 에너지의 양, T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적 체계의 효율성, C는 문화 발전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때 문화의 발전은 기술적 체계를 고도화하여 E와 T를 높임으로써 ㉣ 실현된다. 이는 문화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의 양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동력화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트로피: 열의 이동과 더불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감소 정도를 나타내는 양.

(나)

반 퍼슨은 문화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문화의 형성을 신화적 사고, 존재론적 사고, 기능적 사고라는 세 가지 사고 유형으로 설명하면서 ㉤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문화를 강조했다.

반 퍼슨에 따르면 신화적 사고란 세계를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으로 여기고, 그 힘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서와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우제**를 지내는 문화는 비가 내리는 일을 초월적 존재의 의지에 따라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초월적 존재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기원하는 의례이다. 이는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져 사회가 처한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 도모하려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론적 사고는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이성적으로 파악하여 세계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 규명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감염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문화는 질병이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병원균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적 사고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관료제 문화는 구성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관계를 위계화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 제고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을 체계화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 퍼슨에 따르면 이러한 세 가지 사고 유형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중첩되어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사고 유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삶의 방식이 형성되고 변화한다. 즉, 문화는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구성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1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문화 발전의 원리를, (나)는 문화를 형성하는 사고 유형을 서술하고 있다.
- ② (가)는 문화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을, (나)는 문화 발전이 지체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가)는 문화적 체계의 변천 과정을, (나)는 문화가 인간의 사고에 반영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문화 발전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나)는 문화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가)는 문화에 대한 특정 견해의 한계를, (나)는 문화를 세분화하여 접근한 시도가 갖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19. (가)의 [세 가지 층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술적 체계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적 수단이다.
- ② 사회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이다.
- ③ 관념적 체계는 사회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층위이다.
- ④ 사회적 체계와 관념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층위이다.
- ⑤ 기술적 체계, 사회적 체계, 관념적 체계는 모두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20. (가)의 ㉠을 바탕으로 (나)의 [기우제]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를 식수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동력화한 것이군.
- ② 타고난 신체적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가뭄이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소망이 반영된 것이군.
- ③ 관념적 체계로 작동하는 의례를 통해 비를 동력화하는 기술적 체계를 고도화시키려 한 것이군.
- ④ 초월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체계를 통해 식수를 획득하여 삶의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군.
- ⑤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초월적 존재로부터 획득하여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활용하려는 것이군.

21. (나)의 ㉡이 의미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화는 세 가지 사고 유형이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완결된 체계이다.
- ② 문화는 자연법칙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탐구함으로써 세계의 고유한 특성을 재해석할 수 있다.
- ③ 문화는 과거의 정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에 맞게 역동적으로 변화될 때 가치가 있다.
- ④ 문화는 지역의 환경에 따라 형성된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 ⑤ 문화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22. (가)의 '화이트[A]'와 (나)의 '반 퍼슨[B]'의 관점에서 다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분수의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51년 : ○○산과 ○○시의 고저 차를 측정한 결과 일정한 수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수를 건설함. • 1943년 : 대규모 도시 개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물이 부족해지자 ○○시는 분수에 물 공급을 중단함. • 1969년 : ○○시의 전력 보급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분수의 규모가 커지고 도시 경관이 개선됨. • 1979년 : 분수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시는 시청에 분수 시설 관리과를 신설하여 분수 주변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함. • 1992년 : 분수에 조각된 신에게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지면 신이 그 소원을 들어 준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자 ○○시는 이 분수를 대표 관광지로 지정함. 	

- ① [A]: 대규모 도시 개발로 ○○시가 분수에 물 공급을 중단한 것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분수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 체계가 변화한 것이다.
- ② [A]: 전력을 이용하여 분수에 더 많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경관이 개선된 것은, 동력화한 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 발전의 정도가 높아진 것이다.
- ③ [B]: 고저 차를 측정하여 일정한 수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분수를 건설한 것은, 세계를 이성적으로 파악하려는 존재론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 ④ [B]: ○○시가 분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청에 분수 시설 관리과를 설치한 것은, 기능적 사고에 따라 조직의 기능을 개편한 것이다.
- ⑤ [B]: 사람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분수에 조각된 신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은, 신화적 사고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2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도맡는
- ② ㉡ : 이루어진다
- ③ ㉢ : 피하려는
- ④ ㉣ : 밝히려는
- ⑤ ㉤ : 높일

[24~27]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교내 신문 기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재화와 서비스의 편익을 근거로 이성적 판단에 따라 경제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매우 많거나 급히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간은 종종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에 최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존재로 보기도 한다.

제한된 합리성은 ‘휴리스틱’으로 인해 나타난다. 휴리스틱이란 인간이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직감에 따라 빠르게 의사 결정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인간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기억, 평소에 가지고 있는 호불호의 감정,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단편적인 정보 등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휴리스틱에 따른 의사 결정은 커다란 인지적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인지적 편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인지적 편향이란 경험에 의해 비논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성향을 말한다. 일례로 소비 기한이 지난 재료로 A 음식을 만든 어느 식당이 영업 정지를 당한 뉴스를 접한 후, 다른 식당에서도 A 음식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특정 경험 때문에 음식 선택의 폭을 스스로 제한한 것이다.

(나)

‘디지털 경제’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경제를 말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주요 생산 요소인 정보는 접근이 쉽고, 처리와 전달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는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 양상이 나타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기업은 소비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빅 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업은 소비자의 구매 이력뿐만 아니라 온라인 활동 내역 등과 같은 정보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적합한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처럼 기업은 소비자의 인적 사항부터 위치 정보, 습관 및 취미에 관한 정보 등에 이르기까지 개인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소비자가 커다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

[표제] ‘경험’이 곧 상품이 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부제] 경험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 슬기롭게 소비해야...

[전문]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이 등장하면서 소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슬기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본문] 소비자 개개인의 경험에 맞춘 맞춤형 상품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개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기업은 AI, 빅 데이터 분석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의 구매 이력, 온라인 활동 내역 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한다. 이처럼 기업은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우호적인 감정을 일으켜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상품 구매를 유도한다.

소비자는 커다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개인의 경험에 맞춰 제공된 맞춤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다양한 제품을 접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 소비자의 인식을 연구한 □□대학교 황○○ 교수는 “소비자는 자신의 구매 이력을 고려해 추천된 맞춤형 화장품을 소비하면서 제품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이 감정은 제품에 대한 재구매 의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그 제품이 정말로 자신에게 좋은 제품인지, 다른 상품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맞춤형 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슬기롭게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 우선, 맞춤형 상품에 활용되는 개인 정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수집되거나 유출되지 않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 맞춤형 상품 소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4.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가)와 관련하여

- 경제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인 경제학이 가정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①
- 제한된 합리성이 경험과 직감에 따른 의사 결정을 기피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②
- 휴리스틱에 따른 의사 결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③

(나)와 관련하여

- 디지털 경제에서 생산 요소로서 정보가 지닌 특성은 무엇일까? ④
- 기업이 개인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⑤

25.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 (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제한된 합리성의 개념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상반된 평가를 확인하며 읽었다.
- ② (가)에서 휴리스틱에 따른 의사 결정의 사례에 주목하고, 기업이 판매율을 고려하여 친환경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③ (나)에서 정보가 경제 활동에서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활용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④ (나)에서 합리적 소비와 비합리적 소비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소비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⑤ (나)에서 디지털 경제의 개념에 주목하고, 디지털 상품을 소비할 때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26. <보기>를 참고할 때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사문은 표제, 부제, 전문, 본문 등으로 구성된다. 표제는 기사의 제목으로 중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부제는 표제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전문은 본문에서 제시할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기사의 핵심을 전달하고, 본문은 기사의 내용을 상세히 서술한다. 이때 기사의 내용은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① 표제에서 경험에 기반한 상품이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하여 표현한다.
- ② 부제에서 표제에 언급하는 상품이 맞춤형 상품임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 ③ 전문에서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요약하여 전달한다.
- ④ 본문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이 주는 이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⑤ 본문에서 맞춤형 상품 소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27.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기업은 소비자의 과거 구매 경험을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만을 제공받게 되어 비슷한 제품만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소비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선택의 다양성을 제한하여 소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①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소비자는 휴리스틱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리적 선택을 통해 소비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②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소비자가 자신이 관심 있을 만한 정보만 제공받아 맞춤형 상품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행위가 인지적 편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③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인간은 특정 경험 때문에 비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④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기업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므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⑤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현대 사회에서 정보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기업은 맞춤형 소비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28~3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필을 써 학급 문집에 실으려 함.

[초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휴대폰 사용 시간이 부쩍 늘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들을 확인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진과 영상을 계속 넘기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곤 했다.

휴대폰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공허한 기분이 들었다. 화려해 보이는 친구들의 일상과 달리 평범한 내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져 우울했고, 휴대폰을 보느라 할 일을 미루며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됐다. 휴대폰 화면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 내고 싶어진 나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막상 휴대폰 전원을 끄니 심심해졌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책상 서랍을 열다가, 어릴 적부터 간직해 온 그림 공책을 발견했다.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나는 주변 풍경을 공책에 스케치하며 즐거워하곤 했다. 밤마다 껴안고 잔 곰 인형, 요리하는 엄마의 뒷모습, 나만 보면 야옹 울던 집 앞 고양이까지, 일상의 소중한 것들을 공책에 옮겨 그렸었다. 공책 한 장 한 장에 담긴 오래된 추억들을 떠올리자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다)

아침 물결 잔잔하여 수면이 맑으니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표연하니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
 저물녘 바람 불어 물결을 놀래고
 햇빛이 금색 되어 노을이 뻗치니
 천상의 신선들이 묘약을 만드느라
 불을 조절하며 온갖 곡식 부엌에서 끓이는 듯
 수군 백만이 고기밥이 되었으니*

[A]

조수의 성난 기운 어느 곳이 잠잠할까
 강가의 일곱 불상은 어느나 모르느냐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니 슬픔이 그지없다
 어린 아이 예닐곱 기별 없이 찾아오네
 나그네의 정회를 떨쳐 내면 어떠한가
 한때의 태평성세를 대강만 물으니
 지난 일 아득하여 자취만 남았도다
 나중에 태어나 바람결에 술잔 기울이니
 못다 푼 시름이 갈수록 새롭도다
 정사가 안정되어 좋은 제도 시행되니
 백성들이 편안하여 난리를 잊었도다
 임금이 환궁하여 중흥을 여시니
 가득 찬 티끌을 내일이면 다 쓸겠도다
 천자 현명하여 우리를 살피 양호*를 보내시니
 소신을 중용하여 영위사*로 가라 하여
 나랏일을 걱정하여 한시바빠 궁궐을 떠나오니
 봄옷을 갖 만든 삼월 초하루였네
 꽃 피고 지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빵과 삼도 거두고 울곡식도 성숙하여
 다섯 달 넘었으니 ㉠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가을이라 놀랐네
 행장을 만져 보고 돌아갈 날 헤아리니
 몇 달 어느 날에 채찍을 재촉하여 갈까
 새벽에 꿈이 많으니 갈 길 멀까 하노라

[B]

- 이현, 「백상루별곡」 -

* 수군 백만이 고기밥이 되었으니: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중국 수나라 병사들을 청천강에서 몰살시킨 사건을 가리킴.

* 양호: 정유년(1597)에 왜군이 다시 침략하자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장수.

* 영위사: 조선 시대에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여 대접하던 임시 벼슬.

31.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반어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연쇄법을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탄사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죽음의 허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보여 주는 존재이다.
- ② ㉡은 ㉠과 달리 고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 ③ ㉠은 세월의 흐름에 따른 쓸쓸함을, ㉡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놀라움을 자아내는 존재이다.
- ④ ㉠은 벗어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은 잊고 있었던 본연의 자아를 깨닫게 하는 존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33.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감나무 곳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드러낸다.
- ② ㉡: 신체 변화가 자신이 예상한 대로 일어났음을 부각한다.
- ③ ㉢: 땅을 디디며 순간적으로 느끼게 된 안도감을 강조한다.
- ④ ㉣: 감나무를 한동안 보며 사색에 잠기는 상황을 강조한다.
- ⑤ ㉤: 저녁노을 속에 있는 감나무의 선명한 인상을 부각한다.

34.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B]는 관찰 대상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B]는 사건의 경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A]는 내적 성찰이 진행되는 과정을, [B]는 사회적 상황이 변화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B]는 현실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점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관찰의 범위를 좁히며, [B]는 관찰한 자연 경관을 열거하며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5.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화자는 '매년' '고향집 감'을 따며, (다)에서 화자는 '빵과 삼'을 거두는 것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군.
- ② (나)에서 '우거진 가지들'은 개인적 기억을, (다)에서 '조수의 성난 기운'은 역사적 사건을 환기하는 시각적 이미지라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군.
- ③ (나)에서 화자는 '허리 휘' 아버지와 '구부정한' 자신을 대응시켜 아버지를, (다)에서 화자는 변함없는 '산수'와 유한한 '사람'을 대조하여 자연을 예찬하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늪은 거미'처럼 더딘 존재로, (다)에서 화자는 '태평성세'의 '자취'만 남은 현실에서 '시름'하는 존재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군.
- ⑤ (나)에서 '어쩔 수 없다'는 화자의 말은 나이 든 모습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심리를, (다)에서 '돌아갈 날 헤아리'는 화자의 행동은 궁궐로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36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남촌 땅에서 사는 이업이란 사람의 아들 형제가 같은 과거 시험에서 급제함을 유생이 듣고 이업을 보고 치하한 후 돌아와 부인 왕 씨를 대하여 이업을 일컬으며 말하기를,

“남은 팔자가 희귀하여 두 아들이 한 지방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이름이 널리 알려지나, 우리는 어찌하여 쓸데없는 세 딸을 두어 밤낮으로 걱정을 하는고?”

하며 슬퍼할 때 시녀 춘앵이 곁에 있다가 웃으며 말하기를,

“우리 세 소저는 나중에 우두머리 대장이 되려고 매일 무예를 숭상하오니 오래지 않아 큰 화가 미칠까 근심하나이다.”

하거늘, 생이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내가 전에 이 일을 엄금하였더니 끝내 듣지 아니함은 틀림없이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할 자식이매 차라리 하나를 죽여 둘을 징계하리라.”

하고 취중에 노기를 견잡지 못하여 칼을 들고 후원으로 들어가려 하니 왕 씨가 울면서 말하기를,

“어린이의 상스러운 ㉠ 놀이를 대사(大事)로 삼아 부녀의 천륜을 끊고자 하니 어찌 사람이 차마 할 바이리오? 내일 친척을 모아 의논하여 처리함이 마땅하여이다.”

하며 여러 가지 말로 애걸하니 생이 잠깐 노를 낮추고 모두에게 엄하게 분부하여,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이때 세 소저가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러 들어오다가 이 기미를 알고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여 도로 침소에 돌아와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 대인의 성품이 급하시거늘 우리가 두 번 죄를 범하였음에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실지라. 만일 우리 자매 중 하나를 죽이시면 인륜이 산란하고 부모의 너그럽고 인자한 큰 덕이 그림의 떡이 될 것이요. 또 우리들 셋이 동시에 인간 세상에 태어남은 틀림없이 하늘의 뜻이니 어찌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규방을 지켜 그저 늙으리오? 잠깐 부모 슬하를 떠나 하늘이 명한 임금을 도와 공명을 이룬 후 금의환향하여 부모께 뵈오면 기뻐하실까 하노라.”

벽주가 말하기를,

“언니의 말씀이 가장 유쾌하나 만일 공명을 이루면 다시 부모를 만날 것이나 그렇지 못한즉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리니 언니는 깊이 생각하소서.”

[A]

자주가 묵연부답이니 명주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되, ‘대사를 경영함에 소소한 의심을 아니한다.’ 하나니, 우리가 무단히 사화를 당하여 부모님께 허물을 끼침이 또한 불효이라. 우리가 비록 여자이나 또한 하루에 함께 태어났으니 십 년 기한하면 정한 소원을 이룰 것이니, 언니는 유예치 말고 한마디로 결단하소서.”

자주가 말하기를,

“일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나가기로 정할 것이나 부모님께 하직을 어찌하리오?”

명주가 말하기를,

“남자라도 출입에 가는 곳을 고하나니 하물며 우리는 여자의 몸이라 거취를 명백히 하사이다.”

하고 세 사람이 한 통 편지를 써서 동산 정자에 걸고 남복을 바꿔 입은 후 얼마간의 노자를 가지고 밤중을 지나 담을 넘어

달아났다.

[중략 부분 줄거리] 집을 떠난 세 자매는 길에서 최완 삼 형제를 만나 의형제를 맺고 함께 무예와 학문을 익혔다. 이후 여섯 사람은 전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세 자매는 높은 벼슬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상이 연못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문관과 무관의 모든 신하들을 모으시고 태후와 황후는 내전에 자리하사 육궁비빈과 대신 명부를 불러서 즐겼다.

상이 연꽃을 구경하실 때 문득 최완 등과 자주 등에게 명령하시기를,

“짐이 지난날 연못에 연꽃이 만발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물에 들어가 헤엄치며 물장난하는 바를 좋게 여겼었다. 경들은 절강 사람이라 반드시 물고기 회를 잘 만들 것이니, 지금 연못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 짐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시니 최완 등은 술이 반쯤 취하여 흥이 높았기에 기쁘게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고자 하되, 자주 등은 망연하고 황공하여 땅에 엎드렸다. 상이 연하여 재촉하시니 이에 명주가 엎드려 아뢰기를,

“지금 폐하께서 큰 자리에 오르셔서 마땅히 요임금과 순임금의 다스림을 본받아 백성을 사랑하며 공훈히 여기시고 나랏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할 텐데, 어찌 ㉡ 놀이를 일삼으사 국사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니 신은 그욕이 나서지 않겠나이다.”

하며 말투가 씩씩하였다.

상이 아름답게 여기시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세 자매의 본적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하시고 이에 엄한 명령을 내리시기를,

“신하가 되어 임금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여 짐에게 피해를 줌이 가히 옳다 하랴?”

자주가 모자를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폐하께서 지금 온 세상의 부모가 되어 충성스런 신하의 간함을 받아들이시지 않으니 장차 천하를 어찌 다스리려 하시나이까?”

하며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슬프게 울었다.

상이 거짓으로 화난 체하시며 무사로 하여금 세 사람의 옷을 벗겨 물에 넣으라 하시니, 무사가 명령을 받들어 십여 인이 달려들어 세 사람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이르러서는 세 사람이 피하지 못할 줄 알고 허둥지둥하다가 빨리 사모와 조복을 벗고 엎드려 죄를 청하니 상이 거짓으로 놀라시며 물으시되,

“경의 죄를 청하는 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아뢰라.”

세 사람이 울면서 아뢰기를,

“저희들이 천지를 속여 여자가 남자로 변장한 죄 있사오니, 지금에 와서 어찌 끝까지 속이리이까?”

하고 전후사연을 낱낱이 아뢰었다.

상이 듣기를 마치고 놀라시며 또한 웃으며 말하기를,

“오늘 경들의 속마음을 들으니 진실로 기이한 일이다. 짐이 저번에 이 사실을 알았기에 작위를 줄 때 작위명을 다르게 한 것이요, 오늘 이 행동은 경들의 본적을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들로 하여금 명백히 알게 한 연후에 대사를 행하고자 함이니, 경들이 비록 지혜가 원대하나 어찌 나를 속이리오?”

하시고 시중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태후께 아뢰니 태후가 즉시 부르라고 명하였다.

세 사람이 비단으로 만든 도포와 옥으로 장식한 띠를 갖추고 궁녀를 따라서 장춘전에 이르러 사배하니 태후와 황후가 용안을 보신즉 세 사람의 아름다운 용모와 민첩한 기질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황후가 기쁘게 자리를 내어 주시고 칭찬하기를,
 “경이 **규중의 여자**로 만군 중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여 **나라에 공이 크니** 그옥이 아름답게 여기노라.”
 하시니 세 사람이 엎드려 은혜를 감사하였다.
 - 작자 미상, 「옥주호연」 -

3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생은 딸을 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 ② 춘앵은 자주 자매의 무예 실력을 칭찬했다.
- ③ 자주 자매는 세쌍둥이로 같은 날 태어났다.
- ④ 최완과 자주는 모두 절강 사람으로 알려졌다.
- ⑤ 태후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하지 못했다.

37. [A]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주는 천명을 근거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② 벽주는 실패 시의 위험을 들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명주는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주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 ④ 자주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들어 계획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⑤ 명주는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거취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38. ㉠, ㉡에 담긴 발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행위의 의미를 축소하여, ㉡은 행위의 부당함을 비판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 한 것이다.
- ② ㉠은 행위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은 행위의 경위를 해명하여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 한 것이다.
- ③ ㉠은 행위의 동기를 은폐하여, ㉡은 행위의 절차를 문제 삼아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출하려 한 것이다.
- ④ ㉠, ㉡은 모두 행위가 단순한 유희임을 강조하여 상대방에게 동참을 요청하려 한 것이다.
- ⑤ ㉠, ㉡은 모두 행위가 미성숙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화를 돌우려 한 것이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옥주호연」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억압적인 성별 규범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때 남장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 공적 영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 한편 남장은 국가적 질서 아래서 징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약점이기에 정체 탄로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동반한다. 그러나 여성 주인공들은 정체 가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성취를 인정받게 된다.

- ① 유생이 무예 수련을 하는 딸들을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할 자식’이라고 규정하는 데에서, 가부장적인 성별 규범에 의한 억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세 자매가 ‘공명을 이룬 후 금의환향’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데에서, 사회적 제약을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여성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임금의 잔치에서 ‘세 사람의 옷을 벗겨 물에 넣으라’고 명령한 데에서, 남장이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정체 탄로의 위험을 동반함을 알 수 있군.
- ④ 임금이 세 자매가 ‘여자가 남자로 변장한 죄’를 스스로 밝히도록 유도하는 데에서, 자신을 속인 세 자매를 징벌하여 국가적 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단죄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⑤ 황후가 ‘규중의 여자’로 ‘나라에 공이 크’다고 치하하는 데에서, 남장 시기의 공적이 여성의 성취로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6.25 전쟁 시기 칠산리에 사는 간난어미는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12명의 아이들을 거두어 보살핀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던 간난어미의 무덤을 칠산리를 떠난 후에도 찾는다. 간난어미의 무덤을 옮긴다는 공고가 나자 자식들은 면사무소로 모이고, 형사들은 자신들이 쫓는 사상범이 무덤 이장과 관련하여 칠산리로 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칠산리로 향한다.

면장: 지금 칠산리엔 양순한 주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빨갱이* 소굴이었다면서 칠산리 출신이라면 혼삿길 막히고, 출셋길이 막히고, 살길마저 막힙니다. 실제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신원 조회에 걸려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난리를 일으킨 건 칠산리 사람들이 아닌데, 온갖 피해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셈이죠.

늙은 형사: 칠산리를 좋게만 말씀하시는군요?

면장: 나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젊은 형사: 면장님,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 놈은 칠산리 출신입니다.

늙은 형사: 지금 면사무소에 와 있는 자들도 그렇죠. 빨갱이의 자식들이란, 모두 위험하다구 봐야 합니다.

면장: 칠산리 주민들은 그런 빨갱이의 자식들을 싫어합니다. 그들 때문에 피해만 입고 있기 때문이죠. 칠산리 골짜기엔 그들 어머니의 무덤이 있어서 찾아오곤 하는데, 주민들은 그들이 오는 것마저 꺼려 해요. 그래서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이번엔 자동차 길을 내는 기회에 그 무덤을 옮겨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중략)

면장: (난감한 표정으로) 그럼 유감스럽지만..... 칠산리 주민들이 당신들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칠 겁니다.

장녀: (더욱 강경한 어조로) 그렇게 할 테면 하라죠! 그러나 면장님, 이걸 알아 두세요. 그 무덤 옮기는 걸 반대하는 건 여기 있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오지 못한 사람들, 오고 싶어도 막내처럼 올 수 없는 사람들 그 모두가 반대하는 거라구요!

차녀: ㉠ (회의적인 태도로 고개를 흔들다) 난 여기에 온 걸 후회해. 솔직히, 우리 손으로 어머니를 옮겨 드리고, 그만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

장녀: 어머니를 옮길 곳이 어디야? 그리고 자식들인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구?

차녀: 우린 각자 살고 있는 곳이 있잖아?

장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칠산리뿐이야!

차남: ㉡ (장녀에게 동조하며) 옳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에 지나지 않아. 사람은 마지막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해. 우리에게겐 그곳이 칠산리구, 어머니 무덤은 바로 그곳에 있어야지!

삼남: 칠산리라면 지긋지긋해. 그곳은 우릴 반겨 주지도 않잖아? 우리가 칠산리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두 나쁜 건 아니라구. 오히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잊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차녀: 그래, 오늘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칠산리를 잊은 거야. 그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게 아냐. 칠산리를 잊어버리려구, 그들은 일부러 오지 않았어.

장녀: (꾸짖는다) 너희들, 많이 변했구나!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의 자식들이 아냐!

삼남: ㉢ (대항하듯이) 왜? 나도 어머니의 자식이야. 칠산리를 인생의 전부인 양 붙잡고 있는 것만이 자식들이 할 일이라구 생각하지 말어.

장녀: (분노해서 삼남의 뺨을 친다) 누구야? 또 누구지? 우리들 중에서 칠산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 정말 그냥 안 둘 테야!

차녀: 난 이런 분위기 싫어!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자식도 아니라니..... 그럼 누가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겠어?

삼녀: ㉣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낀다) 싸우지 마..... 무서워.....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건 무섭다니깐.....

장남: (삼녀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무서워할 것 없어. 우린 모두 어머니의 자식들이야. 오늘 여기에 온 사람, 무슨 이유에서든지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 그 모두가 어머니에겐 똑같은 자식이라구. ㉤ (자식들에게) 다들 마음을 진정하구 생각해 봐. 아까 우린 이런 말을 했었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칠산리와 똑같구, 우리가 겪는 고통도 다를 게 없더라구..... 우리가 모두 어머니의 자식들이,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세상 어디든지 그곳이 칠산리야. 우리가 어머니를 동쪽으로 옮겨 드리면 그곳이 칠산리, 서쪽으로 옮겨 모시면 그곳이 칠산리, 남쪽으로 옮겨도 그곳이 칠산리라구.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화장해서, 각자 나눠 갖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 그곳이 모두 칠산리가 되는 것이지. (흐느끼는 삼녀를 데리고 무대 밖으로 퇴장하며) 우리는 칠산리로 가겠어. 어머니를 모셔 갈 사람들은 다 함께 칠산리로 가자구.

자식들, 하나둘씩 장남의 뒤를 따라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무대는 면장만이 남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린다.

면장: 군청입니까? 여기는 월평면 면사무소입니다. 군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연고자들이 방금 칠산리를 향해서 떠났어요. 자기들 손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옮기겠습니다. 네..... 네..... 저도 뒤따라 칠산리에 갈 겁니다. 아무 말썽 없이, 그들의 어머니를 옮겨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바라본다) 눈이 점점 더 쏟아지는군. 어머니가 세상을 뒤엎듯이.....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되는군.

- 이강백, 「칠산리」 -

*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4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젊은 형사는 칠산리 주민들이 양순하다는 면장의 말에 동의했다.
- ② 자식들은 이장 공고 전에는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칠산리에 오지 않았다.
- ③ 칠산리 주민들은 칠산리에 자동차 길이 생기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 ④ 장녀는 면장에게 무덤을 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밝히며 연기를 요청했다.
- ⑤ 면장은 군수에게 자식들이 어머니의 무덤 이장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41. 문맥을 고려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차녀는 장녀와 달리 어머니의 무덤을 옮기는 데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차남은 장녀와 마찬가지로 칠산리를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삼남은 장녀와 달리 칠산리를 잊어버리는 것에 반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삼녀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격해지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장남은 다투고 있는 형제자매를 향해 진정할 것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칠산리」는 어머니의 포용적 사랑을 통해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칠산리라는 공간은 이념 갈등의 아픔을 간직한 곳으로, 전쟁 이후에도 남아 있는 이념 갈등으로 인해 칠산리 주민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하고, 주민들은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동시에 칠산리는 이념을 초월한 간난어미의 희생과 사랑이 실현된 곳으로, 간난어미의 사랑은 칠산리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 ① ‘칠산리 출신이라면 혼삿길이 막히’는 것은 칠산리라는 공간이 주민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② ‘빨갱이의 자식들이란, 모두 위험하다’고 보는 늙은 형사의 인식은 전쟁 이후에도 남아 있는 이념 갈등을 드러내는군.
- ③ ‘그 무덤을 옮겨 달라’는 요구는 자식들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면장과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칠산리 주민들의 의지를 담고 있군.
- ④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세상 어디든지 그곳이 칠산리’라는 장남의 인식은 간난어미의 사랑이 칠산리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군.
- ⑤ ‘어머니가 세상을 뒤덮듯이……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되’도록 내리는 눈은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포용적 사랑을 상징하는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야기를 마친 사내는 델러웨이에 대해 아는 이야기를 다 했다는 식으로 손을 소들소들 흔들며 말했다. 그리고는 나에게도 복사한 델러웨이의 ‘미지의 창’을 한 장 주었다.

“프린터로 카피한 것이라 해도 델러웨이의 작품이라고 하니 잘 보관하세요.”

사내는 휘파람을 불면서 다시 스캐너에 정중하게 사진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없는 사실도 완벽하게 만들어 낸다는 그의 컴퓨터도 ‘미지의 창’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확대를 하면 할수록 입자가 커지는 바람에 그것은 먹장구름 같은 회색의 괴물에 불과했다.

사내는 나에게 이 사진을 해독하려면 백만 달러어치가 넘는 장비가 필요하겠다고 시시껄렁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 참, 그리고 델러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워낙 말도 아긴 사람이라서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몇 마디 안 되는 말 중의 하나일 거예요. ‘창은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만일 창이 없다면 사각의 벽 속에 갇혀 있는 진실을 어찌 구해 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창을 사진기에 있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본다.’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사내는 다시 허공에 대고 팔을 가볍게 흔든 뒤 모니터에 집중했다.

내가 사내에게서 복사한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은 상급보다도 신선한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사내가 이사 온 후로 단 한 컷의 사진도 제대로 현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멀스멀 오염되듯 인화되는 인화지를 보면서 대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사진에 찍힌 피사체나 동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도무지 어떤 의미도 찾아지지 않는 것들뿐이었다. 델러웨이는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 사각의 벽 속에 있는 진실을 엿본다고 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온통 거짓투성이었다. 내가 찍으려는 의도는 고사하고 당시에 찍은 상황도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았다. 진실이나 실제의 모습은 차라리 뷰파인더 밖에 있던, 내가 찍으려고 마음먹던 그 순간뿐이었다.

나는 자극을 위해서라도 델러웨이의 사진을 해독하고 싶었다. 그래서 델러웨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델러웨이에 대한 지식이 사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점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델러웨이 기법을 활용한 방송과 영화가 제작되는 등 여름 내내 델러웨이 열풍이 이어졌고, ‘나’가 가끔 사내를 찾아가 델러웨이 이야기를 하면 사내는 우울한 표정을 짓곤 했다. ‘나’는 사진기자재를 기증하려 사진 아카데미에 갔다가 델러웨이의 사진을 보게 되고, 이후 원장과 대화를 나눈다.

“저는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 들었지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수강생에게 델러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어 보았지요. 그러면 혹시 델러웨이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날까 해서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델러웨이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뒤로 저도 델러웨이에 대해 연구를 했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강사들과 수강생 모두 델러웨이 증후군에 빠졌지요. 델러웨이 증후군이라 이름 붙일 만하지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니, 아마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이겠지요?”

그러면서 원장은 커피로 목을 축였다. 내가 혹시 델러웨이의 사진을 구했냐고 물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어디 그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까지 구해 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사진을 구하는 것만은 두 손 들겠다는군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델러웨이 사진 기행을 떠나지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델러웨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비밀에 가려진 사람이라 구라파다, 호주다, 미국이다…… 여러 설만 난무하니까…… 델러웨이 사진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물어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디서 봤는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참, 더러워서……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건지, 뭘지…… 원…… 델러웨이 증후군이 대단하긴 대단

합니다. 델러웨이 강좌를 개설한 후 실기나 실습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보다 델러웨이에 관한 토론 수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광고 보셨죠? 델러웨이 기법으로 촬영한…….”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으로 질문했던 수강생이 누구였는지 물었지만 원장은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했다. 나는 대신에 16기생들의 사진집이 있으면 한 권 줄 수 없냐고 물었고, 원장은 흔쾌히 한 권을 캐비닛에서 꺼내 주었다. 나는 사진집을 받으면서 원장에게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 졸업생들 중에서 델러웨이 사진을 흉내 내 찍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델러웨이가 국내에 알려진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리고 만든 작가주의 정신을 가진 학생들인데 모두가 뻔하게 아는 델러웨이 기법을 따라 해서 뭐하겠어요? 광고나 영화면 몰라도…….”

그날 나는 이 층 창이 보이는 어둠 속에 앉아서 사내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사진집을 펼쳤다. 책 안에 숨겨진 지폐를 찾는 것처럼 빠른 동작으로 책장을 넘기던 나는 어느 한 사진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사내의 이름이 또 박 박혀 있었고 또한 사내의 증명사진이 아래 칸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사내의 증명사진 위에는 사내의 작품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델러웨이 작품으로 알려진 사진이었다. 한 사내가 평범하게 웃고 있는 인물 사진이었고, 사진 속 남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뭔가가 분명 비치고 있었다.

“가끔은 제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게 제 직업이죠.”

순간 사내가 이사 온 날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내가 집들이 때 델러웨이 사진을 보면서 왜 그렇게 풀 죽은 표정을 지었는지 그때야 알 것 같았다.

사내의 그림자가 오가는 이 층의 창이 마치 사내가 말하는 컴퓨터 같았다. 없는 사실을 실제 만들어 낸다는 커다란 컴퓨터.

- 박성원, 「델러웨이의 창」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이 찾은 단서를 통해 특정 인물의 정체를 추측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병치시켜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키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과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다른 인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전달하고 있다.

4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내는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자신의 직업을 늘 자랑스러워했다.
- ② ‘나’는 델러웨이의 사진을 접한 후 자신의 사진은 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괴로워했다.
- ③ ‘나’는 사람들이 가진 델러웨이에 대한 정보가 사내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동일한 것을 의아해했다.
- ④ 원장은 수강생이 질문을 했을 때 델러웨이를 몰랐지만 아는 체하면서 델러웨이에 대한 생각을 되물었다.
- ⑤ 원장은 델러웨이 사진 기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델러웨이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 답답해했다.

45. <보기>는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학습 활동]
 다음은 현대 사회에 대한 한 사회학자의 견해가 담긴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생각해 보자.

현대 사회는 실재 같은 가짜가 범람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뮬라시옹’과 ‘시뮬라크르’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시뮬라시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실재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고, 그 결과 독자적인 생명력을 얻은 시뮬라크르가 만들어진다. 현대 사회의 대중은 시뮬라크르를 오히려 진정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다.

- ① 사내라는 시뮬라크르가 시뮬라시옹을 통해 델러웨이 열풍을 유발하는 현상을 보여 줌으로써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현대 사회를 드러내고자 한 작품이겠군.
- ② 매체를 활용한 시뮬라시옹을 통해 델러웨이라는 시뮬라크르의 실재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진실과 거짓을 분리하려는 대중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한 작품이겠군.
- ③ 사내의 사진을 소비하는 시뮬라시옹을 통해 사내라는 시뮬라크르의 위상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거짓이 독자적 생명력을 지니는 현실을 부각하고자 한 작품이겠군.
- ④ 델러웨이 사진이라는 시뮬라시옹을 통해 델러웨이라는 시뮬라크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 줌으로써 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진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 작품이겠군.
- ⑤ 델러웨이 증후군을 일으키는 시뮬라시옹을 통해 델러웨이라는 시뮬라크르가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거짓이 만연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부각하고자 한 작품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26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1	②	2	④	3	④	4	②	5	②
6	①	7	④	8	④	9	④	10	⑤
11	②	12	⑤	13	④	14	②	15	⑤
16	⑤	17	①	18	①	19	③	20	⑤
21	⑤	22	①	23	①	24	②	25	③
26	③	27	②	28	④	29	③	30	⑤
31	①	32	③	33	②	34	②	35	③
36	②	37	④	38	①	39	④	40	⑤
41	③	42	③	43	①	44	①	45	⑤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을 파악한다.

제시된 발표에서 '여기 호작도를 볼까요?', '이 그림 속 호랑이, 수호자처럼 보이시나요?' 등의 질문들은 모두 발표자가 청중에게 던진 질문으로, 청중이 던진 질문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호작도는 호랑이와 가치를 한 화면에 그린 그림입니다.'에서 중심 소재의 뜻을 풀이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발표자가 '까지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통해 설명 대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을 알 수 있다. ④ '자료의 호랑이를 가리키며', '업지와 겹치로 원을 만들며'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발표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임을 알 수 있다. ⑤ '다양한 매체에서 캐릭터로만 ~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에서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해 보기를 권하며 발표를 마무리함을 알 수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를 이해한다.

3문단에서 '호랑이를 익살스럽게 그림으로써 친근한 존재로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심리가 반영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서 '나무 위에서 호랑이를 내려다보며 지저귀는 까치는 지배층을 조롱하는 민중을 상징한다'라고 언급하므로 [A]는 복을 기원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② 4문단에서 '호랑이를 내려다보며 지저귀는 까치는 지배층을 조롱하는 민중을 상징한다'라고 언급하므로 [A]가 지배층의 권위에 따르고자 하는 민중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에서 '눈은 이렇게 과장되게 크고, 발도 뭉툭하지요.'라고 언급하며 이는 호랑이를 '친근한 존재로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심리'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절대적 권위자의 위엄을 대신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발표자는 호랑이가 '어딘지 의연하고 듩직한 모습은 아닙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담화의 응집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한편'은 앞에서 말한 측면과 다른 측면을 말할 때 쓰는 접속 표현으로, 앞에서 다루어진 호작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여기'는 말하는 이에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으로, 발표자가 제시한 호작도를 가리켜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② '그런데'는 화제

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표현으로, 앞에서 말한 호랑이에 대한 설명과 관련지어 다른 내용을 언급할 것임을 나타낸다. ③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으로, 앞에서 제시한 호랑이의 외형적 특징을 대신하여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⑤ '그'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대신하는 대용 표현으로, 앞에서 제시한 절대적 권위자를 대신하여 반복을 피하고 있다.

4. [출제의도] 토론 입론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찬성 1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대 1은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찬성 1은 '동물 학대'라는 용어의 정의를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반대 1은 개념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찬성 1은 경제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반대 1은 초래될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④ 찬성 1은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반대 1은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찬성 1은 대안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 않고, 반대 1은 예상되는 반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토론 쟁점별 입론 내용을 파악한다.

반대 1은 입론의 두 번째 문장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하면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까지 제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간 생명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동물실험을 금지하면 인간 생명에 관한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찬성 1은 입론의 두 번째 문장에서 '생명 존중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찬성 2와 반대 2는 입론에서 동물실험 대체 기술이 동물실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찬성 2는 입론의 첫 번째 문장에서 '동물실험 대체 기술은 동물실험보다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반대 2는 입론의 첫 번째 문장에서 '동물실험 대체 기술은 아직 발전 수준이 낮아 인간의 복잡한 생체 반응을 온전히 재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토론에서 상대측 입론에 대해 적절하게 반론한다.

찬성 1의 입론에서는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정의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으로 제시하며 동물실험이 동물 학대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1은 동물 학대의 정의와 실험 동물법을 고려할 때, 동물실험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반론해야 한다. 동물 학대의 정의에서 '정당한 사유'를, 실험동물법 제2조에서 '과학적 목적'과 관련지어 동물실험은 과학적 목적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반론을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실험동물법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기 적절하지 않다. ③ 실험동물법 제1조에서는 '실험 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언급하고 있기에 실험동물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실험동물법 제1조에서는 실험동물법의 목적이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임을 언급하고 있는데, 고통 등급을 구분하는 것과 동물실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관련이 없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실험동물법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기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모음 표기를 이해한다.

'ㄴ'은 초출자 'ㄷ'와 기본자 'ㅣ'를 합한 표기로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표기였다.

8. [출제의도] 부정 표현의 종류를 구별한다.

㉔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이 보조 용언 구성 '-지 않다'를 사용하는 긴 부정문으로 실현되었다.

[오답풀이] ① ㉔는 주체의 의지를 부정하는 의지 부정이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하는 짧은 부정문으로 실현되었다. ② ㉕는 주체의 능력을 부정하는 능력 부정이 보조 용언 구성 '-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긴 부정문으로 실현되었다. ③ ㉖는 주체의 능력을 부정하는 능력 부정이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는 짧은 부정문으로 실현되었다. ⑤ ㉗는 주체의 의지를 부정하는 의지 부정이 보조 용언 구성 '-지 않다'를 사용하는 긴 부정문으로 실현되었다.

9. [출제의도] 관형어의 실현 방법과 수식 구조를 이해한다.

ㄷ에서 관형사 '현'은 체언 '이불'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명사 '겨울'도 체언 '이불'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오답풀이] ㉔의 용언 '호르는'은 어간 '호르-'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하여, 체언 '물'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㉕의 명사 '열'은 체언 '반'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열 반'은 '열'과 '반'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체언 '친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10.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을 탐구한다.

'흙'에는 'ㅅ'이 포함되지 않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의해 겹받침 'ㄷ' 중 뒤엣것에 해당하는 'ㄱ'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흙'은 [흙게]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① '밭'에는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의해 홑받침 'ㅌ'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밭'에는 [바테]로 발음한다. ② '꽃'은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의해 홑받침 'ㄷ'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꽃'은 [꼬출]로 발음한다. ③ '꺾'은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의해 쌍받침 'ㄷ'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꺾'은 [꺼꺼]로 발음한다. ④ '값'은 'ㅅ'이 포함된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의해 겹받침 'ㄷ' 중 뒤엣것에 해당하는 'ㅅ'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값'은 [갑쓸]로 발음한다.

[11~14] (과학) 도널드 A. 뉴만, 「근육뼈대계의 기능해부학 및 운동학」

이 글은 골격근을 통해 운동이 진행되는 원리를 지레의 작용과 근육 원섬유 마디의 수축으로 설명하고 있다. 골격근은 수축을 통해 힘을 만들어 내는데, 이 힘은 지레의 작용을 통해 전달된다. 인체에서 1종 지레는 목 근육이 수축하여 턱끝을 올릴 때, 2종 지레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여 발목을 올릴 때, 3종 지레는 팔에 있는 이두근이 수축하여 손을 위쪽으로 움직일 때 나타난다.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이다. 근육 원섬유 마디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골격근이 수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는 ATP이다. 근육 세포에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이 소량

저장되어 있어 먼저 사용되며, 골격근의 수축이 지속되어 추가적으로 ATP가 필요하면 산소로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하여 ATP를 생산한다. 이때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체내에 젖산을 발생시키고 근육 피로가 유발된다. 골격근의 활동이 끝난 후에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생산하여 근육 세포에 다시 저장하고 누적된 젖산을 분해한다.

11.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1문단에 의하면 골격근은 수축 작용으로 힘을 만들어 내며 스스로 이완할 수 없으므로 골격근은 이완을 통해 힘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의하면 골격근은 힘줄을 통해 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므로 힘줄은 뼈와 골격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 의하면 팔을 굽힐 때 이두근이 수축하면 쌍을 이루는 삼두근은 이완되므로 팔에 있는 이두근과 삼두근은 쌍을 이루어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 의하면 골격근의 수축 작용은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세포 내의 근육 원섬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근육 원섬유를 통해 골격근의 수축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 의하면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이며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방식으로 골격근이 수축하게 하므로, 근육 원섬유 마디가 근육이 수축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인을 추론한다.

6문단에 따르면 골격근이 수축할 때 근육 세포에 저장된 ATP와 크레아틴 인산이 먼저 사용된다. 그리고 골격근의 활동이 끝난 후에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생산하여 근육 세포에 다시 저장하는데 이때 산소의 공급이 충분해야 ATP와 크레아틴 인산의 생산 효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운동 후에 숨을 몰아쉬는 현상은 체내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을 늘렸을 것이며, 이를 통해 크레아틴 인산 생산의 효율이 높아졌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6문단에 따르면 근육의 피로는 산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ATP의 생산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①은 운동 후의 상황으로, 운동 중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정도 근육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숨을 몰아쉬어 산소의 공급을 늘리는 현상이 근육의 피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6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포도당과 지방산을 산소로 분해하여 생산할 때 산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일어난다. ②은 운동 후의 상황으로, 운동 중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정도 젖산이 누적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숨을 몰아쉬어 산소의 공급을 늘리는 현상이 분해할 젖산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③ 6문단에 따르면 골격근의 활동이 끝난 후에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생산하여 근육 세포에 다시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생산 효율이 높아진다. 그런데 생산된 ATP의 양이 많다면 근육 세포에 저장할 ATP와 크레아틴 인산의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숨을 몰아쉬어 산소의 공급을 늘리는 현상이 생산된 ATP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어났을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6문단에 따르면 근육 세포에 저장된 ATP와 크레아틴 인산이 소모된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ATP는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하여 생산하며, 산소는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하는 데 쓰인다. 그러므로 숨을 몰아쉬어 산소의 공급을 늘리는 현상이 포도당과 지방산의 생산을 유발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13.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2문단에 따르면 인체에서는 뼈와 뼈가 맞닿아 연결되는 곳인 관절이 받침점, 뼈에 힘을 가하는 힘줄의 끝부분이 힘점, 힘이 미치는 곳이 작용점이 된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뼈와 뼈가 맞닿아 연결되어 있는 곳인 A를 받침점, 뼈에 힘을 가하는 힘줄의 끝부분인 B를 힘점, 힘이 미치는 곳인 C를 작용점으로 볼 수 있다. 즉, A~C가 '받침점-힘점-작용점'의 구조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문단에 따르면 '받침점-힘점-작용점'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은 3종 지레이다.

[오답풀이] ① 받침점은 C가 아닌 A, 작용점은 A가 아닌 C이다. ② 작용점은 B가 아닌 C, 힘점은 C가 아닌 B이다. ③ 받침점은 B가 아닌 A, 힘점은 A가 아닌 B이다. ⑤ 받침점은 B가 아닌 A, 힘점은 C가 아닌 B, 작용점은 A가 아닌 C이다.

14.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4문단에 따르면 암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어둡게 보이는 구간을 말하며, 5문단에 따르면 골격근이 수축할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 즉 암대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할 때 암대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 따르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할 때 마이오신 머리가 만든 구름다리 구조가 형성되었다가 분해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골격근이 수축한다. ③ 4문단에 따르면 명대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 밝게 보이는 구간을 말하며, 5문단에 따르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하면서 양쪽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가까워진다. 이 과정에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대의 길이는 줄어들고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밝게 보이는 부분도 줄어든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암대 중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을 H대라고 하며, 5문단에 따르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양쪽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가까워지므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지는 구간은 늘어나고 H대의 길이는 그만큼 줄어든다. ⑤ 4문단에 따르면 Z선은 액틴 필라멘트를 서로 이어 주는 선이며, 5문단에 따르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이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Z선 사이 간격이 줄어들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게 된다.

[15~17] (예술) 김문석, 「젯트리피케이션과 그래피티 아트」

그래피티는 도시 소외 계층의 저항 정신에 기반한 단순 낙서 행위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공공 예술 장르로 인정받게 되었다. 1970년대의 그래피티는 주로 태그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태그는 글자를 마치 그림처럼 변형하였다는 조형적 매력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조형적 요소가 과도하게 강조된 나머지 글자를 알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비평가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80년대에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그래피티의 형식 속에 자신의 사유를 담아내고자 하는 예술가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스텐실 기법을 통해 그래피티의 형상을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과, 장소 특정성을 기반으로 그래피티가 그려지는 장소 자체를 작품의 주제와 연결 짓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바탕으로 그래피티는 텅 빈 낙서 행위가 아닌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공공 예술로 변모하였다.

15.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1문단에 따르면 그래피티는 도시 소외 계층들이 건물 벽이나 지하철 등의 장소에 허가받지 않은 채 낙서하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3문단에 따르면 그래피티가 공공 예술 장르로 인정받은 것은 1980년대

이후,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작품에 사회적 메시지를 형상화한 이후이다. 따라서 그래피티가 예술 장르로 인정받으면서 창작 주체가 도시의 소외 계층으로 확대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그래피티는 공공장소에 낙서처럼 그려진 글자나 그림을 말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그래피티는 도시 소외 계층들이 낙서를 통해 기존 질서에 저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③ 2문단에 따르면 그래피티 중 태그는 주로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것을 의미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그래피티 중 태그는 복잡한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지닌 그림처럼 변형되는 과정에서 글자가 읽는 대상에서 보는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조형적 요소가 강조되며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1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유를 추론한다.

그래피티의 일종인 태그는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게 그려지다 보니 대중들이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으며, 단순한 이름이나 별명 외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그래피티는 글자가 복잡하고 화려하여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비가시적'이라는 평가를, 개인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텅 비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답풀이] ① 작품의 기법을 다양화한 것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② 태그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태그를 돋보이게 하고자 화려한 색채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사용하는 색채를 제한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지문에서는 대중들이 그래피티의 저항적 메시지에 거부감을 느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④ 지문에는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워진 후에도 그래피티를 그리는 행위가 여전히 저항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그래피티가 저항적 성격을 상실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제시된 작품은 공공장소에 그려진 그래피티 작품으로, 스텐실 기법과 장소 특정성을 활용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공 예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작품은 주차장이라는 의미의 단어 'PARKING'을 공원이라는 의미의 단어 'PARK'로 변형하여 도시 공간에 '주차장'이 아닌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 필요하다며 작품의 주제 의식을 창의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때 'ING' 부분을 페인트로 덧칠한 것은 해당 부분을 잘 보이지 않게 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는 것이고 글자의 형태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보기>에서 '그네 타는 어린 소녀'의 형상이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여 그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면 표현할 글자나 그림의 형상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작품이 주차장이라는 공공장소에 그려졌으며 현대 사회 도시 공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문단에 따르면 공공 예술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는 장르이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작품이 'PARK'라는 글자와 함께 '그네 타는 어린 소녀'의 그림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문단에 따르면 정교한 형상을 갖춘 글자와 그림은 예술성을 높이면서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작품이 'PARKING'을 'PARK'로 바꾸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작품이 그려진 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점이 의미 완성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장소 특정성을 지닌 그래피

터는 그러한 장소에서 떼어 내는 순간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하다.

[18~23] (주제 통합) (가) 레슬리 화이트, 「문화과학」, (나) C. A. 반 퍼슨,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가) 레슬리 화이트, 「문화과학」

화이트는 문화를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 낸 체계로 보고 문화를 기술적 체계, 사회적 체계, 관념적 체계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화이트는 인간이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성향인 반 엔트로피적 성향을 지님으로써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이트는 문화 발전의 보편적 원리를 $E \times T = C$ 로 제시하였다. 이때 E와 T의 증가는 기술적 체계의 고도화로 실현된다.

(나) C. A. 반 퍼슨,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반 퍼슨은 문화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문화의 형성을 신화적 사고, 존재론적 사고, 기능적 사고로 설명하였다. 반 퍼슨은 이러한 세 가지 사고 유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화가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을 이해한다.

(가)는 화이트가 제시한 문화 발전의 보편적 원리를 공식으로 서술하고 있고, (나)는 반 퍼슨이 제시한 문화를 형성하는 세 가지 사고 유형을 신화적 사고, 존재론적 사고, 기능적 사고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는 문화 발전이 지체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③ (가)는 문화를 이루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체계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화이트, (나)는 반 퍼슨의 견해만을 소개하고 있다. ⑤ (가)는 문화에 대한 특정 견해의 한계를, (나)는 문화를 세분화하여 접근한 시도가 갖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19.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가)의 2문단에서 관념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와 사회적 체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상, 신념, 규범 등을 일컫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2문단에서 기술적 체계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적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사회적 체계가 기술적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2문단에서 기술적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체계와 관념적 체계가 잇따라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1문단에서 문화는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며 기술적 체계, 사회적 체계, 관념적 체계는 모두 문화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한다.

기우제는 초월적 존재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함으로써,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진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여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려는 삶의 방식이다. 이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명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반 엔트로피적 성향을 바탕으로 할 때,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인 비를 초월적 존재로부터 얻어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기우제는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한 사회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내는 의례이므로, 비를 식수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동력화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기우제는 초월적 존재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기원하는 의례이므로, 타고난 신체적 능력을 개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관념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의 영향을 받으므로 관념적 체계를 통해 기술적 체계를 고도화시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기우제는 초월적 존재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기원하는 의례이므로 초월적 존재에 의

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추론한다.

(나)의 5문단에서 문화는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구성되는 역동적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화가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의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5문단에서 세 가지 사고 유형은 상호 작용을 하며, 문화는 완결된 체계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의 3문단에서 세계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려는 사고방식이 존재론적 사고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동사로서의 문화와 무관하며, (나)에서는 세계의 고유한 특성을 재해석하는 것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나)에서는 문화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문화의 특수성에 따른 각 사회의 정체성 형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1943년에 대규모 도시 개발로 ○○시가 분수에 물 공급을 중단한 것은, 인위적인 환경 조건의 변화로 필요에 따라 분수에 에너지의 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이는 화이트의 관점에서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인 물을 분수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물질적 수단이 변화한 것과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② 1969년에 전력을 이용하여 분수에 더 많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경관이 개선된 것은, 화이트의 관점에서 전력을 이용하는 기술적 체계를 통해 물이라는 에너지를 더 많이 동력화함으로써 문화 발전의 정도를 높인 것이다. ③ 1751년에 ○○산과 ○○시의 고저 차를 측정하여 일정한 수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분수를 건설한 것은, 반 퍼슨의 관점에서 사물과 현상을 이성적으로 파악하여 세계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려는 존재론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④ 1979년에 ○○시가 시청에 분수 시설 관리과를 신설한 것은, 반 퍼슨의 관점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기능적 사고에 따라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을 체계화한 것이다. ⑤ 사람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분수에 조각된 신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은, 반 퍼슨의 관점에서 신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화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수에 조각된 신에게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짐으로써 삶의 질서와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3.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은 나누어서 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을 혼자서 책임을 지고 몰아서 모든 것을 돌보거나 해낸다는 의미의 '도맡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⑥는 꿈, 기대 따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루어진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피하려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은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힌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밝히려는'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는 수준이나 정도 따위를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높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24~27] (독서·작문) (가) 한진수, 「청소년을 위한 행동 경제학 에세이」, (나) 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다) 교내 신문 기사문 (가) 한진수, 「청소년을 위한 행동 경제학 에세이」

최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존재로 보기도 한다. 제한된 합리성은 휴리스틱으로 인해 나타난다. 휴리스틱에 따른 의사 결정은 커다란 인지적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경험에 의해 비논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인지적 편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나) 재정경제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디지털 경제에서 정보는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 양상이 나타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기업은 소비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소비자가 커다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 교내 신문 기사문

소비자 개개인의 경험에 맞춘 맞춤형 상품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우호적인 감정을 일으켜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상품 구매를 유도한다. 소비자는 커다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개인의 경험에 맞춰 제공된 맞춤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다양한 제품을 접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이에 소비자는 맞춤형 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즐겁게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

24.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가)에서 최근의 경제학은 제한된 합리성이 휴리스틱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본다. 휴리스틱이란 인간이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직감에 따라 빠르게 의사 결정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따라서 제한된 합리성은 인간이 경험과 직감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가)의 1문단에서 전통적인 경제학은 인간이 재화와 서비스의 편익을 근거로 이성적 판단에 따라 경제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에서 휴리스틱에 따른 의사 결정은 커다란 인지적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1문단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주요 생산 요소인 정보는 접근이 쉽고, 처리와 전달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3문단에서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소비자가 커다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글쓰기에 참고가 되는 글을 읽은 방법을 파악한다.

(다)를 작성하기 위해 (나)의 1문단에서 정보가 경제 활동에서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활용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읽었다. 이를 참고하여 (다)에 기업이 소비자의 경험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1문단에 제한된 합리성의 개념이 제시된다. 하지만 제한된 합리성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상반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가)의 3문단에 휴리스틱에 따른 의사 결정의 사례가 제시된다. 하지만 기업이 판매율을 고려하여 친환경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④ (나)에서 합리적 소비와 비합리적 소비의 차이점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⑤ (나)의 1

문단에 디지털 경제의 개념이 제시된다. 하지만 디지털 상품을 소비할 때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2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전문은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이 등장하면서 소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슬기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표제에서는 '경험이 곧 상품이 되는 시대'라는 표현을 통해 경험에 기반한 상품이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부제에서는 표제에서 언급한 '상품'을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이라고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본문의 1문단에 맞춤형 상품이 기업에 주는 이점이 제시되어 있고 본문의 2문단에 맞춤형 상품이 소비자에게 주는 이점이 제시되어 있다. ⑤ 본문의 2문단에서 □□대학교 황○○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맞춤형 상품 소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신뢰성 있게 전달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한다.

<보기>는 맞춤형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제품만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소비 성향이 강화될 수 있고, 이는 선택의 다양성을 제한하여 소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에는 경험에 의해 비논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성향인 인지적 편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와 (가)를 연결 지어 '소비자가 자신이 관심 있을 만한 정보만 제공받아 맞춤형 상품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행위가 인지적 편향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다)의 ㉠을 보완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 따르면 휴리스틱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택은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다. ③ <보기>와 (가)에 '소비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보기>와 (나)에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보기>와 (나)에 '기업이 맞춤형 소비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28. [출제의도] 글쓰기 방식을 파악한다.

초고에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부각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의 '휴대폰 화면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에서 다른 대상과의 대비를 통해 내면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② 3문단의 '나만 보면 야옹 울던 집 앞 고양이', 5문단의 '사각사각 연필 소리'에서 의성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3문단의 '밤마다 껌안고 잔 곱 인형, 요리하는 엄마의 뒷모습, 나만 보면 야옹 울던 집 앞 고양이'에서 대상의 나열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⑤ 5문단의 '나 역시 꽃씨처럼 조금씩 자라나는 중'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29.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초고에는 그림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느꼈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휴대폰 사용 시간이 부족 늘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곤 했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며 시간을 허비했음이 반영되어 있다. ② 2문단의 '휴대폰을 보느라 할 일을 미루며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됐다'에서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못한 것에 후회를 느꼈음이 반영되어 있다. ④ 4문단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화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에서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화분이 소

중하게 느껴졌음이 반영되어 있다. ⑤ 5문단의 '그러자 초라했던 일상이 전보다 특별하게 느껴졌다.'에서 초라했던 일상이 전보다 특별하게 느껴졌음이 반영되어 있다.

3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초고를 보완한다.

마지막 문단에 삭제된 '오늘의 나 역시 조금씩 자라나는 중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앞 문단의 '오늘의 나 역시 꽃씨처럼 조금씩 자라나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와 중복되는 내용이다. 마지막 문단에 추가된 '공허했던 마음이 어느새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으로 물들었다'는 휴대폰을 쓰고 그림을 그린 경험으로 인한 감정의 변화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마지막 문단에 삭제된 내용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아니고, 추가된 내용은 경험의 다른 사례가 아니다. ② 마지막 문단에 추가된 내용은 경험이 주는 의미에 해당하지만, 삭제된 내용은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니다. ③ 마지막 문단에 추가된 내용은 경험으로 인한 감정의 변화에 해당하지만, 삭제된 내용은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니다. ④ 마지막 문단에 삭제된 내용은 앞 문단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추가된 내용은 경험의 다른 사례가 아니다.

[31~35] (시가 복합) (가) 시적 풍경과 감각적 이미지의 기능 / (나) 문인수, 「감나무」 / (다) 이현, 「백상루별곡」

(가) 시적 풍경과 감각적 이미지의 기능
 감각적 이미지는 시적 풍경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 화자는 풍경 속에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고, 감각적 이미지가 환기한 기억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거나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나) 문인수, 「감나무」
 이 작품은 '고향집 감'을 따기 위해 감나무를 오르내리며 '허리 휘' 아버지처럼 '구부정한'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흙으로 돌아간 아버지와 숙절없이 고목이 된 감나무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화자와 포개어지며, 노을이 지는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답고도 쓸쓸한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 이현, 「백상루별곡」
 이 작품은 백상루의 아름다운 모습과 누각 위에서 바라본 청천강 주변의 풍경, 그리고 풍경으로부터 환기된 역사적 사건과 화자의 처지 등을 노래하고 있는 가사이다. 색채어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백상루 주변 경관을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영위사로 파견된 자신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을 파악한다.

(나)는 '검은', '붉게' 등 색채어를 활용하여 저녁노을 속에 감나무가 서 있는 시적 상황을, (다)는 '금색'이라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저물녘 청천강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나), (다) 모두 반어법, 연쇄법, 감탄사, 경어체를 활용하지 않았다.

32. [출제의도] 작품 간 시어의 의미를 비교한다.

(나)의 ㉠은 '고향집'의 오래된 '감나무'로, 화자는 열매를 모두 내어 준 채 서 있는 '감나무'를 '한 시절의 유적'으로 인식하며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다)의 ㉡은 가을철 곤충으로 화자는 ㉡의 '우는 소리'에 가을이 왔음을 인식하며 놀라움을 느끼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은 화자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나이 들을 깨닫게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죽음의 허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보여 주는 존재로 보기 어렵다. ② ㉡은 계절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화자에게 궁궐을 떠나는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깨닫게 할 뿐,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보기 어렵다. ④ ㉢은 속절없는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일 뿐 화자가 있고 있었던 본연의 자아를 깨닫게 하는 존재로 보기 어렵다. ⑤ (나)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에 쓸쓸함을 느끼고 있고, (다)의 화자는 궁궐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보기 어렵다.

33.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⑥는 '어느 사이인지 모르는 동안에'를 의미하는 부사어로, 화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늙은 거미'처럼 더더진 신체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따라서 ⑥가 신체 변화가 자신이 예상한 대로 일어났음을 부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는 '여러 군데에' 또는 '곳곳마다'를 의미하는 부사어로, 감나무 곳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드러낸다. ③ ㉤는 '왈각 달려들어 닳음 물거나 움켜잡는 모양'을 의미하는 부사어로, 화자가 감나무에서 내려와 땅을 디디며 순간적으로 느끼게 된 안도감을 강조한다. ④ ㉥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는 동안'을 의미하는 부사어로, 화자가 감나무를 한동안 보며 사색에 잠기는 상황을 강조한다. ⑤ ㉦는 '수준이 높게' 또는 '정도가 심하게'를 의미하는 부사어로, 저녁노을 속에 있는 감나무의 선명한 인상을 부각한다.

34. [출제의도] 시상의 전개 방식을 이해한다.

[A]는 백상루에서 바라본 청천강의 모습으로, 비유적 표현과 색채어 등을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B]는 임금의 환궁과 명나라 지원군의 파견 등 사건의 경과가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는 백상루에서 바라본 청천강의 아침과 저녁 무렵의 변화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고, [B]는 관찰 대상의 변화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A]는 내적 성찰이 진행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B]는 정사가 안정되었다가 다시 전쟁이 일어나 명나라 장수가 파견되는 등 사회적 상황의 변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④ [A]는 인물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B]는 현실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A]는 청천강의 아침과 저녁 무렵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관찰의 범위를 좁히며 정서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려우며, [B]는 관찰한 자연 경관을 열거하며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3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나)에서 화자는 '허리 휘' 아버지와 '구부정한' 자신을 대응시키며 자신 또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이 들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으며, (다)에서 화자는 변함없는 '산수'와 유한한 '사람'을 대조하며 슬픔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화자는 '고향집 감'을 '매년' 따며 '어느덧'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에서 '삼월 초하루'에 '궁궐'을 떠난 화자는 '뽕과 삼'을 거두는 것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우거진 가지들'은 화자에게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기억을, (다)에서 '조수의 성난 기운'은 을지문덕이 중국 수나라 병사들을 청천강에서 몰살시킨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을 환기하는 시각적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가 감나무를 더디게 오르내리는 자신을 '늙은 거미'에 빗대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나이 든 처지를, (다)에서 화자가 '태평성세'를 '차취'

만 남았다고 여기며 '시름'에 잠기고 있다는 점에서 어지러운 현실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어쩔 수 없다'는 화자의 말은 나이 든 자신의 모습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심리, (다)에서 '돌아갈 날 헤아리'는 화자의 행동은 다섯 달 전에 떠난 궁궐로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6 ~ 39] (고전소설) 작자 미상, 「옥주호연」

「옥주호연」은 세 자매가 집을 떠나 남장 후 나라에 공을 세우는 등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여성 영웅 소설이다. 수록 부분은 세 자매가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억압을 피해 집을 떠나는 장면과 임금에 의해 세 자매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간의 공적이 여성의 성취로 인정받는 장면이다.

36.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춘앵은 세 자매의 무예 승상으로 가정 내 큰 화가 미칠 것을 근심하고 있을 뿐, 무예 실력을 칭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유생은 왕 씨에게 '쓸데없는 세 딸'을 두어 '밤낮으로 걱정'을 한다며 한탄했다. ③ '우리들 셋이 동시에 인간 세상에 태어남'과 '하루에 함께 태어났으니'에서 세 자매가 세쌍둥이임을 알 수 있다. ④ '경들은 절강 사람이라'에서 최완과 자주가 절강 사람으로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임금이 연못가에서 잔치를 베풀 때 '태후와 황후는 내전에 자리'하였다는 부분과 세 자매의 정체가 밝혀진 후 세 사람이 궁녀를 따라 장춘전으로 가 태후와 황후를 만나는 부분에서 태후가 연못가에서의 일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A]는 세 자매 간의 대화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이다. 이때 자주는 '일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나가기로 정할 것'이라고 말할 후, 부모님께 하직할 방법에 대해 자매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으므로 계획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하늘의 뜻'은 집을 떠나 공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이다. ② '그렇지 못한즉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들어 깊이 생각하여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③ '대사를 경영함에 소소한 의심을 아니 한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자주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⑤ 남자도 출입에 거취를 밝히니 여성인 자신들은 더욱 거취를 명백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 의도를 파악한다.

왕 씨는 딸들의 무예 연습을 '놀이'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축소해 딸을 잃을 수 있는 가정의 위기를, 명주는 입수를 요구하는 천자의 명을 '놀이'로 표현함으로써 국사를 돌보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해 정체가 발각될 위기를 벗어나려 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에는 행위의 필요성을 역설하려는, ㉡에는 행위의 경위를 해명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에는 행위의 동기를 은폐하려는, ㉡에는 행위의 절차를 문제 삼으려는 의도가 없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출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 ㉡ 모두 각각의 행위를 단순한 유희로 표현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에게 동참을 요청하려 한 것은 아니다. ⑤ ㉠, ㉡ 모두 행위가 미성숙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화를 돌우려고 한 것은 아니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임금이 세 자매의 남장 사실을 스스로 밝히도록 유도

한 것은 세 자매를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정체를 '모든 벼슬아치들로 하여금 명백히 알게 한 연후에 대사를 행'하고자 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무예 수련을 하는 딸들을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할 자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나누는 가부장적인 성별 규범에 의한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세 자매가 '공명을 이룬 후 금의환향'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것에서 여성의 몸으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사회적 제약을 거부하고 주체적 삶을 개척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세 사람의 옷은 남복으로, 이 옷을 입고 세 자매는 공적 영역으로 진입했지만 '옷이 벗겨'지면 정체가 탄로 날 수 있는 위험이 함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⑤ 세 자매가 여성임이 밝혀진 후 황후가 치하하는 것은 세 자매가 이룬 공적이 여성의 성취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40 ~ 42] (희곡) 이강백, 「칠산리」

이 작품은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버려진 12명의 아이들을 거두어 보살폈던 간난어미의 포용적 사랑을 통해 이념 갈등이 남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품이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이해한다.

면장은 군수에게 전화하여, 자식들이 방금 칠산리를 향해서 떠났으며, 자기들 손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옮기겠다고 말한 사실을 보고한다. 이를 통해 자식들이 어머니의 무덤 이장에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칠산리 주민들이 양순하다고 말하는 면장에게, 젊은 형사는 자신들이 잡으려는 인물이 칠산리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칠산리 주민들이 양순하다는 면장의 말에 동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칠산리 골짜기에는 어머니의 무덤이 있어서 자식들이 찾아오곤 했다. ③ 칠산리 주민들은 자동차 길이 나는 길에 간난어미의 무덤을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칠산리에 자동차 길이 나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장녀는 면장에게 자식들 모두가 무덤 이장을 반대한다고 밝힐 뿐,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41. [출제의도] 지시문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이해한다.

삼남은 칠산리를 잊어버리는 자식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고 꾸짖는 장녀에게 대항하듯이 말하고 있다. 또한 칠산리를 인생의 전부인 양 붙잡고 있는 것만이 자식들이 할 일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남은 칠산리를 잊어버리는 것에 반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장녀는 어머니의 무덤을 옮기는 것을 반대하지만, 차녀는 어머니를 옮겨 드리고 빨리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는 장녀의 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고개를 흔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② 장녀는 칠산리를 자식들이 돌아갈 곳이라 인식하며, 차남은 그러한 장녀의 말을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차남이 장녀의 말에 동조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④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삼녀는 두려움을 느끼며, 서로 싸우는 건 무섭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⑤ 장남은 형제자매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무서움을 느끼는 삼녀를 위로하고, 다투고 있는 형제자매를 향해 진정할 것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그 무덤을 옮겨 달라'는 요구는 칠산리라는 공간이 지닌 부정적인 낙인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자식들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면장과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지도 않다.

[오답풀이] ① '칠산리 출신이라면 혼삿길이 막히'는

상황은 칠산리 출신이라는 것이 칠산리 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므로, 칠산리 주민들이 출신으로 인해 받는 낙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빨갱이의 자식들이란, 모두 위험하다'고 보는 늙은 형사의 인식은 특정 이념을 지닌 사람들의 자식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6.25 이후에도 지속되는 이념 갈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세상 어디든지 그곳이 칠산리'라는 장남의 인식은 어머니의 사랑은 칠산리라는 특정 장소에 국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간난어미의 사랑이 칠산리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어머니가 세상을 뒤덮듯이.....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되'도록 쏟아지는 눈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감싸 주었던 것처럼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다는 점에서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포용적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3 ~ 45] (현대소설) 박성원, 「델러웨이의 창」

이 작품은 사내가 만들어 낸 델러웨이라는 가공의 인물과 델러웨이의 사진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대인과 진실이 되어 버린 거짓이 만연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사건 전개 양상을 이해한다.

서술자인 '나'가 사진 아카데미의 16기생들의 사진집에서 사내의 작품 사진이 델러웨이 작품으로 알려진 사진임을 확인하며, 사내가 델러웨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냈음을 추측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병치되어 있지 않다. ③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다른 인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이해한다.

'가끔은 제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게 제 직업이죠.'라는 사내의 말을 고려할 때, 사내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나'는 델러웨이와 달리 자신의 사진은 온통 거짓투성이라고 생각한 데에서 괴로웠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델러웨이에 대한 지식이 사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④ 원장은 수강생이 질문했을 때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 들었지만 모른다고 할 수 없어서, 질문한 수강생에게 델러웨이에 대한 생각을 되물었다. ⑤ 원장은 델러웨이 사진 기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델러웨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지 못해 답답해했다.

45. [출제의도] 교과 지식을 융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델러웨이에 열광하는 델러웨이 증후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델러웨이를 실체인 것처럼 만드는 시물라시옹을 통해 발생하며, 시물라시옹을 통해 점차 독자적인 생명력을 얻은 시물라크르는 델러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델러웨이가 가상의 인물임을 모르고 델러웨이 증후군에 빠진 모습을 통해, 거짓이 만연한 현대 사회의 모순을 부각하고자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사내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시물라크르가 아니다. ② 작품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진실과 거짓을 분리하려는 대중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작품이 아니다. ③ 델러웨이의 사진을 소비하는 것이 시물라시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내는 시물라크르가 아니다. ④ 시물라시옹은 동적인 과정이므로 델러웨이 사진을 시물라시옹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진의 한계가 주제는 아니다. |